광주교통공사, 철도차량 역량 강화 업무협약

광주도시철도가 철도차량 분야 기술 역량 강화·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과 손을 맞잡았다.

광주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최근 광주 서구 마륵동 광주교통공사 본사에서 철도차량 분야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차량 정비 기술 정보의 상호 교류 △전문 인력 교육훈련·워크숍 공동 운용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과제 발굴·연구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차량 시스템에 대응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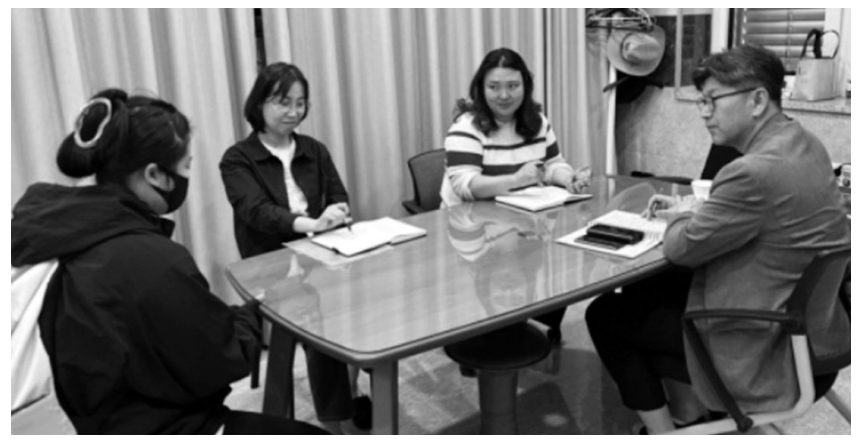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광주도시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지역 관광 활성화·고속도로 이용 편의 '맞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전남관광재단, 금호익스프레스와 '광주전남지역 관광활성화 및 고속도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휴게소 할인과 홍보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전자와 탑승객의 휴식환경을 조성했다. 대상 휴게소는 춘향(순천), 함평나비(무안), 보성녹차(순천), 지리산(양방향), 섬진강(양방향) 등이다.

또한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버스 래핑(wrapping)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호익스프레스는 두 기관의 정책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남도한바퀴 여름/가을상품과 버스한바퀴 상품 탑승고객은 목걸이형 탑승권을 커피/열린매장 직원에게 제시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음료와 간식을 구매할수 있다. **최권범 기자**



이현주 순천시 왕조1동 주무관, '적극 행정' 눈길

순천시 왕조1동 복지팀에 근무하는 이현주(복지 8급) 주무관이 부모 없이 생활하는 10대 자매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미담이 되고 있다.(사진)

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관내 모 고교 1학년인 A(16)양과 중학교 3학년 여동생 B(15)양은 모친이 갑작스럽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주무관은 A양 자매들을 발 빠르게 복지재단에 연계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 지원을 비롯해 손수 이삿짐을 옮기는 등 직접 나서기도 했다.

당장 먹을 식비 등 생활비도 없던 A양 자매들은 왕조 1동 복지팀의 도움으로 긴급생활지원비와 복지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A(16)양은 직접 이 주무관에게 편지를 작성해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잠시 곁을 비워 힘든 상황에 처한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머니 없이 둘이서 사는 게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는데, 복지팀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덕에 마음의 짐을 덜고 살아간다"고 적혔다.

이어 "이제는 전처럼 돈 걱정도 많이 안하고 저도 동생도 다시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구제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주무관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며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칭찬을 받아 오히려 부끄럽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서구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5일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과 함께 중증장애인 나들이 지원사업 행사를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는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야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여자 김모씨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워 집에만 있었는데 여수 케이블카도 타보고 직접 제과제빵 체험까지 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대만 서구장애인복지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서포터즈 '보보랑' 발대식

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은 지난 4일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최흥종기념관에서 현충시설 서포터즈 '보보랑' 발대식과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

역사와 보훈에 관심을 가진 송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보보랑'은 향후 현충시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현충시설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우고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현충시설은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8개 시·군 총 102개소에 이른다. **윤준명 기자**

스마트인재개발원, '디지털새싹 사업' 선정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에서 전국 규모 새싹 B유형 주관기관으로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사진)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높은 교육 만족도를 인정받아 올해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현직 교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 운영과 교원 역량 향상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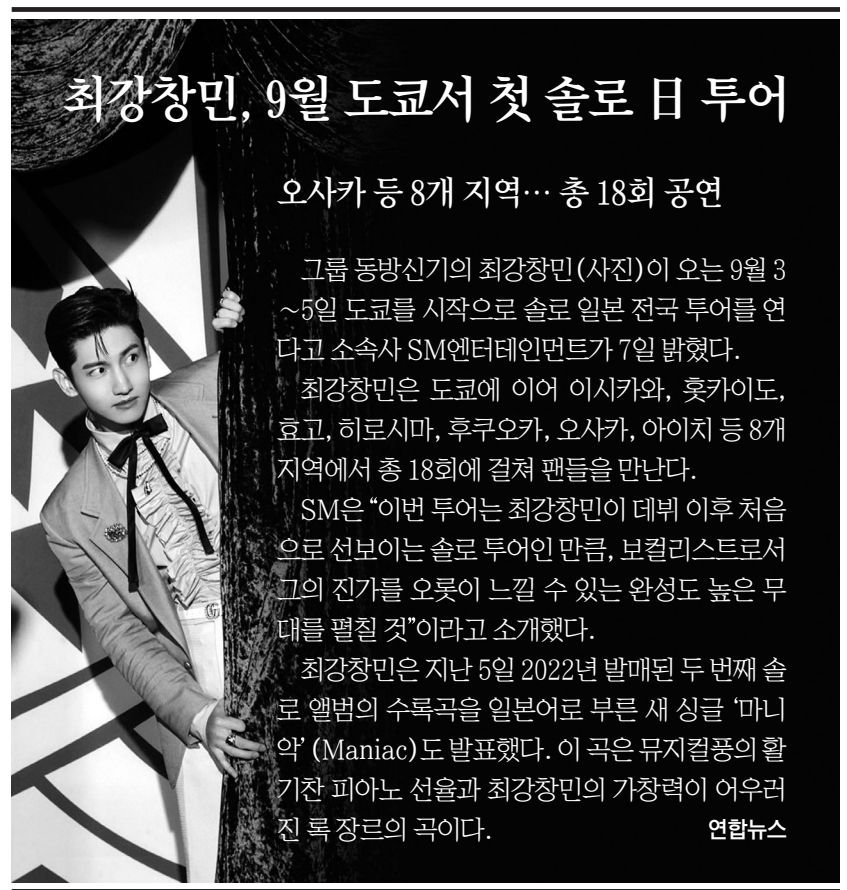
이번 사업에서는 도서벽지, 다문화 가정, 특수교육 대상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특화 프로그램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광산구,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위문과 예우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

광산구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감사함을 전하고자 호국보훈 분야 유공 구민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호국보훈 분야 유공 구민은 △최규성(대한상이군경회 광산구지희 소속) △장성님(전몰군경유족회 광산구지회) △장애자(전몰군경미망인회 광산구지회) △박양순(무공수훈자회 광산구지회) △김대수(6·25참전유공자회 광산구지회) △시판율(고엽제전우회 광산구지회) △심종필(특수임무유공자회 광산구지회) △이재운(월남전참전자회 광산구지회) △홍흥순(재향군인회 광산구지회) 등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준 국가 유공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일상에서 나라 사랑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제니 '루비', 美 롤링스톤 '최고의 앨범' 선정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1집 '루비'(RUBY·사진)가 미국 유명 음악지 롤링스톤의 '2025년 최고의 앨범'(The Best Albums of 2025 So Far)에 K팝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5일(현지시간) 롤링스톤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목록에 따르면 '루비'는 레이디 가가의 '메이헴'(Mayhem), 플레이보이 카티의 '뮤직'(Music) 등 쟁쟁한 스타들의 앨범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롤링스톤은 '루비'에 대해 "2000년대와 2010년대 알앤비(R&B) 중심의 팝을 지배했던 아이디어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했다"고 평했다.

또 다른 미국 매체 콤플렉스(Complex)도 '루비'를 '2025년 최고의 앨범'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콤플렉스는 "'루비'는 제니에게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제니는 '루비'에서 다양한 음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루비'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뜻대로 하세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 사랑, 신념, 정점이란 주제를 담은 앨범으로, 제니가 직접 프로듀싱을 맡았다.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와 선공개된 '만트라'(Mantra), '러브 행오버'(Love Hangover), '엑스트라L'(ExtraL)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